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5년
2016년 12월 1일
음력 11월 3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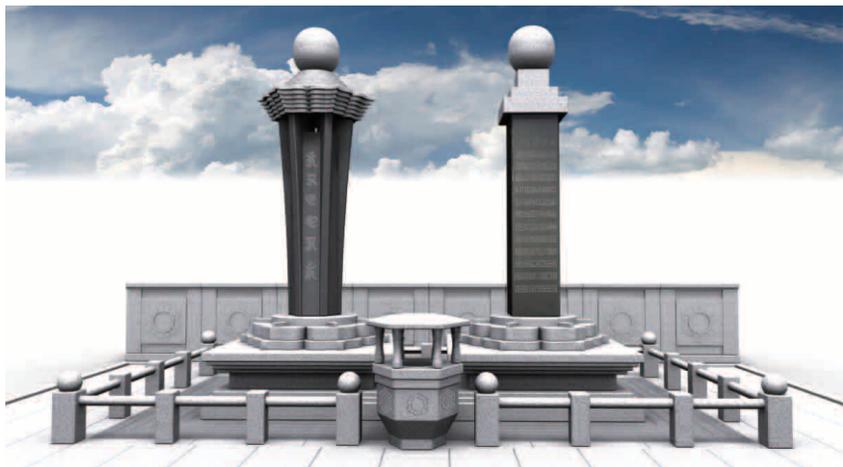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205호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 공덕비(功德碑) 가지불사 봉행

12월 중 완공을 목표로 높이 4.4 미터



▲ 원정대성사 공덕비 조감도

한국 밀교 증흥조이자 불교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신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뜻을 기르코자 대성사께서 생전에 더 잡으신 서울 역삼동 총지종 본산에 공덕비를 건립한다.

11월 28일 통리원 앞 마당에서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로 통리원장 인선정사와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종조 공덕비 지진 불사를 봉행 했다.

공덕비는 총지종의 교의대강을 함축적으로 구현한 원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조형미를 살리고, 원정대성사의 밀교 증흥 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기존 원상에 구현된 총지종 교의대강인 6대 4만 3천과 종조님께서 창안하신 육합상을 결합하여 아름다운 조형미를 구현했다. 공사는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덕비 조성에는 총지사 건축당시 조성한 성불탑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 공덕비와 나란히 쌍탑을 이룬다.

대구 제석사 본존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대구·경북 교구 주관으로 11월 25일 봉행



▲ 대구 제석사 본존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대구·경북교구 대구 제석사(주교 행원심 전수) 본존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가 11월 25일 봉행되었다. 안성정사(대구·경북 교구장, 수인사 주교)의 집공과 우인정사(총무부장, 개천사 주교)의 사회로 봉행된 불사에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양계 만다라는 밀교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석사에 모신 태장, 금강 만다라 수행에 전념 하시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취좌주 입처개전의 정신으로 누구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임한다면 대비만행의 큰 서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며 만다라 봉안 가지불사의 원력이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서원했다.

제석사 주교 행원심 전수는 봉행사에서 “오늘 본존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에 참석해주신 효강 종령 예하 및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림사 만다라 봉안을 계기로 교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서원합니다.”며 만다라 봉안으로 다시 한번 진인염승의 불꽃이 일기를 서원했다.

대구 제석사 양계 만다라 봉안으로 총지종의 입교개종과 함께 시작된 대구 지역 교화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를 서원한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교법당 동해사 헌공불사



▲ 종립 동해중학교 교법당 동해사 헌공불사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종립 동해중학교 교법당 동해사(주교 법선 정사)가 헌공불사를 총기45년 11월 19일에 봉행했다.

헌공불사는 동해사 서원당에서 주교 법선 정사의 집공과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의 사회로 인선 통리원장, 수현 중앙중의회 의장, 안성 사감원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 재무부장 원당 정사, 탁상달 동해중학교 교장, 신정회 부산·경남 향우회 지회장, 신인록 전 지회장, 경각사 신정회 류길자 전 지회장,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임화정 회장, 총지종 교도 및

교직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주요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본존제막에 이어 총지종 정통의례에 따라 불사가 진행됐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동해사 주교 법선 정사가 헌화 및 훈향 정공을 올렸다.

효강 종령 예하를 대신하여 인선 통리원장이 대독한 헌공사에서 “우비고뇌(憂悲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의 원천이 되게 하며,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오며, 간소한 헌공사로서 불전에 헌공하오니 영검토록 부처님의 가지신력과 자비지혜가 함께 하옵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라고 동해사의 교화 발전을 서원했다. 인선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동해사는 지난2012년에 기존의 컴퓨터실을 서원당으로 개설하여 주 2시간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동해중학교 교직원 모인인 불자회 법회를 월 2회,

그리고 동해중 학부모 불자회 반야회 정기 법회가 월 2회씩 열리는 서원당이며, 쉬는 시간이나 일과 후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 안정과 신심 수양을 위한 열린공간이며, 옴니 반메홀 진인기도를 올리는 수행공간이기도 합니다.”며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에게 열린수행공간이 되기를 서원했다.

탁상달 동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축사에서 “오늘,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전당인 동해사가 다시 새 출발하는 힘찬 발걸음은,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이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까지도 법음이 전해지길 염원합니다.”며 동해사가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진리의 도량이 되기를 염원했다.

이어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황윤희 지회장도 “학교 내에 서원당을 개원하여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불자 학부모님들께 밀교의 수승한 법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단 의지의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며 동해사 개원을 축하했다.

동해사는 종립동해중학교 교법당으로 2012년 개설 공사를 시작해 개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준비를 끝내고 이날 헌공 불사를 마쳤다. 초대 주교로는 법선 정사가 임명됐다.

부산 동해사= 김초량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옹양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증생제도에 열과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대에 모셔두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태장계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계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물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사만다라'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수/행/제/협/기

제10차 중국 불교수행체험

— 혜광 정사 (정각사).



▲ 참선하는 총지종 정사들

계속되는 참선의 시간은 어두운 공간속에 의미만 불빛만이 참선자를 비추고, 어디선가 틈으로 들어온 바람만이 정신을 맑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종소리는 참선을 멈추게 했으며, 경보를 이어가게 했다.

불교 총지종 원당정사(계정부장, 밀인사), 법일 정사(교정부장, 벽룡사), 도우정사(단음사), 혜광 정사(정각사)는 한국불교종단 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0차 한국 불교수행체험'을 수련하였다. 이번 체험은 총기 45(2016)년 11월 8일부터 15일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중경시 쌍계당(雙桂堂)에서 개최하였으며, 종단 협소속의 스님과 정사 3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행사에서 총지종 정사들은 중국 쌍계당에서 중국스님들이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새벽예불과 하루공양을 동참했으며, 특히 참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1. 새벽예불.

우리 종단에서는 새벽정상으로 예불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하는 새벽예불은 도량석과 4물로서 새벽을 깨우는 의식부터 한다. 중국은 법당 내에서 간단한 종소리와 함께 예불을 올린다. 다음은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데 스

님이 향을 이마에 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향을 নিয়ে 부처님과 법당 밖에 올리는 모습은 달랐다. 경을 읽는 소리는 대동소이하게 장엄하고 경건하게 시작되지만, 중간부터는 경쾌한 음으로 경전을 읽는다. 특히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므로 부처님께 올리는 절은 종아리까지 오는 방식위에 무릎을 꿇고 올린다.

경전을 읽는 속도는 큰 목탁과 요령등 불구로 박자를 맞추어 가지만 예불 시간이 지나갈수록 평강히 빠른 속도로 경을 읽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수시로 절을 올리지만 이곳은 시작과 끝 중간 정도에 절을 하며 예불동안 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는 법당 내에서 경행을 한다. 완전히 다른 것은 예불을 스님들과 교도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

2. 하루공양.

공양전에 공양계를 염송하는 것은 일지했다. 우리나라 바루는 밥,국물,찬그릇등 4가지로 구별

되어 1번정도로 음식을 옮기지만, 이곳은 밥,찬그릇2개로 모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찬나물류는 무치고, 다른나물과 섞고 맷히는등 나물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만, 중국은 모든 음식들이 그러하듯 거의 볶거나 튀기는 나물반찬이었다. 이것 또한 음식문화의 차이이다. 밥과 찬은 보통 행자스님이 나누어 주지만, 중국은 종건스님도 앞치마를 하고 수시로 나누어 주는데 소임을 맡은 스님이 당번식으로 한다.

3. 참선.

이번 중국 불교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우리종단은 참선의 기본을 삼밀수행과 가부좌로 자세를 바로하고 밀교관법중의 하나인 대일경을 근거인 '아' 자관으로 대일여래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관법과 '담'자관으로 종자관 또는 본존관으로 수행하여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관법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 일반참선은 가부좌를 한 후 번번하여 '이뫼'를 화두를 삼아 수행한다.

보통 50분 참선후 10분 경행한다. 중국참선에 앞서 법당의 구조를 보면 중앙에 부처님이 앉아서 후면이 열려있어 사면을 걸어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거의가 중앙 벽에 부처님이 앉아서 '—'형으로 되어있다. 수행하는 곳은 사면벽에 무릎위 정도높이에 길게 앉을 수 있게 해 놓았고 아래는 신발을 넣을 수 있게 했다.

참선은 50분을 한 후 내려와 10분동안 경행을 하기보다 경보처럼 부처님을 중앙에 두고 시계방향으로 맴돌았다. 인원이 많으면 충돌할 수 있지만, 안쪽과 바깥쪽을 도는 스님들이 각각 알아서 움직이므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를 돌며 바닥면과 신발소리도 나서 조용해야 될 장소에서 뛰니 어색도 했다.

또한 양팔이 움직이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는 것도 생소했다. 왼팔을 70%정도 크게 움직이고 오른팔은 30%정도로 작게 움직이라 해서 뛰면서 팔을 의식하면서 흔들었다. 계속되는 참선의 시간은 어두운 공간속에 희미한 불빛만이 참선자를 비추고, 어디선가 틈으로 들어온 바람만이 정신을 맑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종소리는 참선을 멈추게 했으며, 경보를 이어가게 했다. 우리종단에서 하는 관법은 50분이 아닌 그이상의 시간을 수행하므로 연속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 낙산대불

4. 관불.

중국의 사찰은 어떤구조로 되어 있을까? 보통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일주문과 사천왕을 지나고 석탑을 지나면 전의 이름으로 어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 주변에 관음전,地藏전, 나한전, 삼신각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본 중국사찰은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면 포대화상(제물을 가져다 줌)이 있고 관세음보살전, 보현보살전을 지나 대웅전의 부처님을 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뒤에 후불탱화와 위에는 닻집이 있지만, 이곳은 달랐다.

보통 중앙에 부처님 또는 보살상이 있어 뒤로 나갈 수 있으며, 대웅전의 양벽에는 16나한이 8분씩 나누어져 계신다. 법당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구조는 이리하며, 절을 하면 옆에 계시는 스님이 종을 쳐준다. 우리전통사찰은 아담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중국사찰은 거대하고 웅장하다. 낙산대불은 전체높이 71m, 머리길이 10m, 귀길이 6.72m등 컷구멍속에 성인 두사람이 들어가고 발 위에만 100명이 설 수 있다고 한다. 이 석불은 당나라(8세기) 때 만들었고 완성하는데 90년이 걸렸다.

석공과 백성들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케이블카가 한번에 100명을 태우고 올랐던 아미산(해발 3099m). 코끼리를 타고 계



▲ 다면불



▲ 중국 쌍계사 대웅전 석가모니부처님 좌우후시

시는 보현보살의 도량으로 불리고 있으며, 높이 48m, 무게 660t에 이르는 세계최대규모의 사면삼방보현화상이 있다. 산밑에는 운해로 차있으며 일출과 불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보현보살의 크기만큼이나 실천수행 정진이라고 미소를 보내고 계신다.

중국불교의 수행체험이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중국불교와 우리불교가 다른 것을 찾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 다름도 있지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과 깨달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자비와 이행을 배워 대중에게 베푸려는 모습은 양국의 스님과 교도들의 마음은 같았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관성사	김대기	11/2	10,000
	황성녀	10/28	10,000
기로스승	원봉	11/14	10,000
	지선행	11/14	10,000
관음사	신막심	11/7	10,000
개천사	강순시	11/10	10,000
	강순시	11/14	10,000
	이희권	10/26	20,000
	전세형	11/7	30,000
밀인사	정정희	11/1	5,000
	이기상	11/6	10,000
	안옥진	11/6	10,000
	이성수	11/6	10,000
	박주연	11/6	10,000
	이수연	11/6	10,000
만보사	정덕순	10/26	10,000
벽룡사	양정현	11/1	10,000
	양지현	11/1	10,000
	권혁민	11/1	10,000
법황사	박미경	11/15	10,000
실지사	조성우	11/2	10,000

실보사	이순옥	11/2	10,000
	이순옥	11/10	10,000
수인사	정순득	11/15	10,000
	무명씨	10/28	10,000
	심지장	11/9	10,000
서울경인교구	인간방생비	11/1	930,89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10/31	10,000
	강경화	10/27	10,000
정각사	변순개	11/4	10,000
	조성화	11/20	10,000
지인사	승효제	11/14	10,000
총지사	법등	10/31	30,000
	김병관	11/15	10,000
	신용도	10/27	10,000
	신용도	11/18	10,000
	박정희	10/27	10,000
	박정희	11/18	10,000
	백지순	11/12	30,000
	손경옥	11/15	10,000

통리원	김평석	11/15	10,000
화음사	무명씨	11/2	10,000
	무명씨	11/5	30,000
흥국사	지정	11/14	20,000
사원명무기명	김갑선	10/19	10,000

10월26일부터 11월20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제10차 한중수행체험 중경시 쌍계당에서 불교충지종 정사 4명 수행 동참



▲ 중경시 쌍계당에서 봉행된 예불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은 성공스님을 단장으로 소속 종단 스님과 정사님으로 구성된 한중수행체험대표단 32명을 2016년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중경시 쌍계당(雙桂堂)에서 개최

되는 제10차 한중수행체험에 파견했다. 불교충지종은 재무부장 원당 정사, 교정부장 법일 정사, 단음사 주교 도우 정사, 정각사 해광 정사가 수행 체험에 참가했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부속사업

으로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대회에서 합의하여, 이듬해 예비회의를 통해 개최사찰과 일정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중경시 쌍계당에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수행체험과 문화탐방의 시간으로 중국불교와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쌍계당은 서남불교 선종종찰로 제일선림, 중문거벽(宗門巨壁)이라 불린다.

이번 수행 체험은 양국 불교계의 수행자들이 참여하여, 수행, 예불, 음식 등 사찰 생활과 지역의 불교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질적 수행교류 행사이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 세계문화유산인 낙산대불을 비롯하여, 불교 4대 성지 중 한곳인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을 순례했다.

이번 행사에는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미륵종 비구스님과 정사님 16명과 조계종, 보문종, 염불종에서 비구니 스님 16명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 2면)

스승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종단 발전의 초석을 마련 불교충지종 승직연산외 열려



▲ 문경에서 열린 승직자 연찬회

불교 충지종 통리원은 각 사원 주교와 승직자가 동참한 「충지종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11월 21일 문경에서 열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금번 대 토론회는 종단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의사를 마음껏 펼치기를 당부했다. 토론회는 재무부분, 규율부분, 교화부분, 포교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재무부장 원당정사의 재무현황설명을 시작으로 열린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이날 토론은 13시에 시작하여 22시까지 진행됐다.

했다.

토론에서는 재무 전산화와 다양한 불공회향방법의 시급성이 거론되었으며, 신도교육과 승직자 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외 포교 거점사원 육성, 종단법령 준수, 각종 행사 전문팀 구성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종단이 변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며 종단의 발전을 위한 승직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단 행정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충지종 전국 사원 수능원만 불공 봉행

불교충지종 전국 사원은 11월 17일 대학입시 수험능력평가를 맞아 일제히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원만 불공을 봉행했다. 이날 불공은 수능 시간과 동시에 개최하여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했다. 충지종의 교도 자녀들 뿐 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서원했다.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는 “수능원만 불공은 인생의 첫 관문인 수능 시험을 맞은 수험생들의 지혜가 밝아지고,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기를 간절히 서원하는 불사이입니다. 수험생 모두가 부처님의 가

지역으로 무사히 시험을 마치도록 서원합니다.”며 수능원만 불공의 의미를 전했다. 충지종 사원 뿐 만 아니라 서울 조계사, 강남 봉원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불교 사원에서도 자녀들의 수능 원만을 위한 부모들의 간절한 불공이 이어졌다.

포항 수인사 이웃 나눔 김장 성황 중앙동 관내 50여 가구 김치 전달



▲ 포항 수인사 김장 나눔 현장

충지종 포항 수인사(주교 안성 정사)는 11월 24일 교도들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수인사 신정희는 부처님 가르침인 보시행의 실천인 이웃 나눔 김장 500포기 를 담았다.

그동안 지역 봉사 단체로 꾸준한 활동을 해온 수인사는 지난 9월 21일에는 포항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꽃보다 할배 할매 효잔치’를 봉행하고 7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공양을 나누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수인사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인사의 꾸준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불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중앙동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청소년 가정 50여 가구에 전달됐다.

포항 = 수인사 김예선, 최정민 통신원

제3차 충지종 집중 수행 괴산 중원사에서 전수 9명 수행



▲ 제3차 전수 집중수행(괴산 중원사)

불교충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집중 수

행을 괴산 중원사에서 시행 했다. 밀교의 관법 수행을 위주로 시행된 이번 수행은 월륜관 및 아자관 개관 설명과 함께 실수 위주의 수행을 진행했다. 특히 월륜과 아자의 족자를 이용해 관법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수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밀교의 독창적인 수행법인 월륜관과 종자관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체험을 통해 현장 교화에 적극 활용 할 방침입니다.”며 이번 수행의 의미를 전했다.

11월 29일부터는 정사들을 대상으로 제 4차 집중수행이 실시할 예정이다.

운천사 부림합창단 마산 돛섬 국화축제 초청공연



▲ 운천사 부림합창단 마산 돛섬 국화축제 초청공연

마산 운천사 부림합창단(지휘 박건우)은 지난 11월 9일부터 열린 마산 돛섬 국화축제에 초청되어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했다. 특히 마산 시내 30여개의 불교합창단 중 유일하게 초청되어 공연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부림합창단은 지난 10월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와 사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음성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마산 운천사=통신원 이진숙, 박미광



각종 축원(祝願)을 위한 『발원문 및 법문집』

“화도방편(化度方便) 가운데 제일은 불공이며, 불공 가운데 으뜸이 간절한 발원과 여법한 법문이다”

“발원문과 법문은 법향(法香)이나 감로수(甘露水)와 같은 것으로, 망자(亡者)와 생자(生者) 모두를 청정일념(淸淨一念)에 들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편찬 : 불교 충지종 밀교연구소(비매품) / 발행 : 불교 충지종 인쇄 : 동림기획 / 면수 : 총 258쪽

『각종 불공 발원문 및 법문집』에는 새해 불공 발원문을 비롯하여 각종 서원성취 불공, 결혼, 출산, 생일, 기제불공 등 총 30여 종의 축원불공 관련 발원문과 법문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의 선정 52

생활 중의 정념 9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진정한 웰빙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온다

요즘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다보니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웰빙이라고 해서 생활 전반에서 가능하면 자신을 더 편안하고 쾌적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음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대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웰빙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유기농 식품이나 고급 의류 혹은 고급 가구 등 물질적인 것의 고급화에만 치중하지 '육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은 도외시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통하여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웰빙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함께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사람들은 명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질병 회복이나 정신질환의 치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명상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어 온갖 명상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분은 동양권에서 유래된 것이며 특히 불교 명상은 체계적이고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지향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명상법이기도 하다.

특히 서양의 명상법은 대부분이 불교의 것을 변용하여 독특한 이름을 붙이고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의 명상법을 배워서 나뉘고 써 먹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신세계를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사술이 낀 명상법에 몰두하여 돈을 배앗기도 하고 정신과 몸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정념은 모든 명상법의 궁극이기도 하다. 항상 정념을 유지하고 생활한다면 사회생활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육체적 고통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며 그것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마음이 집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늘 정념을 유지한다면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움에서 오는 행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이 진정한 웰빙이 아닐까?

일상에서의 정념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념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정념 수행을 하려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조용한 장소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몰두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념수행 -쉬운 말로 명상이라고 하자- 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나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일상생활을 핑계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이런 것을 시키셨겠는가? 중국의 선사들도 평상심이 도라고 말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항상 함께 한다. 정념수행도 마찬가지이다. 바쁜 현대인들도 일상생활과 병행하면서 충분히 실천할 수가 있다.

불교의 정념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의 단절 없이 항상 실천할 수 있다.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혹은 누구를 기다리거나 전철에 앉아서도 정념을 실천할 수 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고 명상음악을 굳이 틀 필요 없다. 가부좌도 필요 없다. 그저 간단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훌륭한 정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정념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정념은 호흡관찰과 함께 우리 몸의 상태, 즉, 몸의 상태와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앞서서도 설명한 것과 같다.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게 되면 특히 얼굴과 어깨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진다.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돈도 기구도 장소도 시간도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 복잡한 생각에 몰두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긴장하게 되며 이런 것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병이 들게 된다.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에서 정념은 반드시 필요하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한숨 쉬기 만으로도 심신의 평화가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에 열이 나 있고 맥박은 빠르게 뛰며 온 몸은 긴장되어 있다.

항상 목 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어깨 또한 잔뜩 힘이 들어가 있다.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 유연한 사고를 할 틈도 없다. 먹잇감을 쫓는 짐승처럼 항상 당면 과제에 짓눌려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한 마디로 탐진치에 눈이 벌개져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태처럼 자신을 돌아다 볼 틈이 없다 보니 터무니 없는 일들을 저질러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 빠뜨린다. 정념 수행은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괴로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이 가장 우선

이다. 사회 일반의 대부분의 명상법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이런 분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지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마약을 복용하면 엔돌핀이나 도파민 등이 다량 분비된 후 탈진해버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안락을 위해서는 긴장을 푸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한숨을 쉬어 보라. 한 두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한결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띄워 본다. 우리 뇌는 억지로 미소 짓는 것에도 자기가 행복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긴장했을 때 몸의 감각을 무디게 하기 위하여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나 엔돌핀 등의 분비가 해소된다고 한다.

그만큼 몸에 가해지는 무리가 덜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 몸이 피곤한 것은 육체를 많이 사용했을 때에도 느껴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에도 몸이 녹초가 된다. 이런 것은 누구나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정념은 호흡관찰과 함께 우리 몸의 상태, 즉, 몸의 상태와 느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앞서서도 설명한 것과 같다.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게 되면 특히 얼굴과 어깨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진다.

수행을 제대로 많이 한 사람의 얼굴이 편안하고 광채가 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긴장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지만 긴장

이 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깊어지며 가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꾸로 적용해서 호흡을 깊고 가늘게 하다 보면 몸의 긴장도 또한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긴장은 풀리고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념의 효과는 거의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긴장된 일상에서 간간히 동작을 멈추고 크게 한숨을 쉬어 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해독제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스님도 호두마늘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호흡을 크게 쉬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한숨쉬기의 포인트는 천천히 들어쉬고 내쉬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쉬고 들어쉬는 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숨을 내쉬다 다음 다시 들어쉬기 전에 잠깐 숨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온 몸의 긴장이 풀린다. 멈추기가 없으면 단순한 한숨쉬기 내지는 심호흡에 불과하다. 숨 멈추기가 있어야 생각과 몸의 완전한 정지가 이루어지고 확실한 심신의 휴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쉴 때는 들어쉴 때보다 천천히 내쉬어야 한다.

심호흡을 너무 하면 산소가 과다하게 흡입되어 오히려 피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쉴 때는 온 우주의 맑은 공기가 들어온다고 관상하고 내쉴 때는 내 안의 나쁜 기운이 함께 빨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숨쉬기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숨쉬기 하나 만으로도 일상의 긴장이 얼마나 풀어지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는 지금 당장 실천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곁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훴의 의미와 수행법



▶ 박물관산책

제주도의 자연과 민속을 한눈에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우리나라 유인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한반도의 자연과 식생 및 민속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어 뿐 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도 모두가 바다와 연관되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은 수 천년을 지켜온 제주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바다에서는 아열대 물고기와 산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한라산의 고도에 따른 식생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세계자연문화유산에 섬 전체가 지정 될 정도로 제주도는 많은 비경과 숨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관광으로 제주도를 찾은 사람들도 먹거리, 놀거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이 들여주는 이야기를 한 번은 살펴볼만하다.

島の 형성과정, 지질 암석, 동식물, 해양생물 등을 생태학적으로 전시하여, 제주의 자연과 인문 환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전시물 감상과 자료공개도 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전시관



2007년 6월 27일,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지정유산으로는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가 탁월하게 평가되고 있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을 포함한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3개소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과정과 내용 등을 설명패널과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연사전시실



자연사 전시실은 제주도의 지질암석, 동식물 등 자연사 자료를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로서 크게 지질암석전시장, 육상생태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질암석 전시장에는 제주의 형성과정과 화산분출장면을 비롯하여 폐쇄화석, 새발자국 화석, 만장굴 축소모형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의 육상생태관에는 해안습지대, 상록활엽수림대, 초원지대, 낙엽수림대, 침엽수림대, 고산관목림대(백목달밭)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동식물 표본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하였으며, 흰뺨검둥오리, 큰오색딱따구리, 직박구리, 제주왕나비, 반딧불이 등을 동적으로 연출하였고 제주의 뱀과 보호식물을 동영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한라산의 버섯 11점, 재래감귤 10점, 제주의 곤충 512점, 동물골격 26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제1민속전시실



민속 전시실 부분은 제1민속 전시실과 제2민속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민속 전시실을 보시면 제주 변천사와 제주인의 일생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으며, 민속전시실에는 2,381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민속 전시물의 내용이 제주의 민속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주를 알리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며, 일반 관람객들에게 있어서도 옛 제주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인의 일생을 통해 옛 제주인의 태어남에서부터 성장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꾸려나가고, 나이가 들어 환갑을 맞이하며, 쫄며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여 꽃상여에 실려 저승길로 떠나던 상례를 지내고 후에 제례를 지내는 연속적인 전시물을 통해 육지생활보다는 다른 아주 간소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생활 부분을 통해 옛 제주인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엿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신앙의례로써, 영등굿이라는 것이 있는 이 곳은 어부와 해녀의 채취물 증식신으로 믿어지는 영등신을 음력 2월 1일 본도에 들어와 보름동안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오곡과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 영등굿은 영등신을 위하여 환영제와 송별제가 각각 배풀어집니다. 제주어 사면이 바다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많은 식량을 바다에서 얻었습니다. 태우라는 낚시배를 통하여 돛의 일종인 자리돛을 잡거나, 옥돛이나 갈치잡이에는 돛단배를 사용하였습니다.

제2민속전시실



제2민속 전시실에서는 제주의 생산생활을 주제로 하며 제주의 여자들은 일찍이 바다에 들어가 10~15m이상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강인한 제주 여성의 생활능력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 바다의 어류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한 해녀도구(수경,호미,빛창,성계골라지)들과 농경생활에 사용되었던 불미, 맷이, 보습 등이 전시되어 그 옛날 제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의 광활한 한라산 기슭의 초지는 고려시대부터 목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제주산 조랑말은 인내력이 강하고 유순하여 승마는 물론 밭갈이, 마차끌기 등 농사일에도 이용되었습니다.

해양종합전시관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여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과 월동장이 되고 있다. 또한 아열대와 한대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바다로 해양종합전시관에는 그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해조류, 패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처음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크고 작은 고래의 머리뼈를 볼 수 있고, 제주 큰돌고래 동영상과 함께 돌고래 골격 3점을 관람객이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단독 전시대를 이용하여 전시 연출하고 있다.

전시관 중심부에는 2004년 제주에서 발견되어 박제로 제작된 13m 크기의 브라이드 고래골격을 전시중이며, 바닥에 리액티브 시스템(Reactive System)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고래와 더욱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형산갈치와 인간과 바다의 공생, 말미잘의 친구 흰둥거리 등 제주바다와 그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박제로 전시하고 있으며, 제주바다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 대형어류표본, 연산호, 산갈치와 고래상어, 돌묵상어, 소가오리 등을 수중 디오라마와 설명패널로 연출하고 있다.

아외전시장



제주도는 돌이 많은 고장으로서 옛부터 돌을 가공한 생활용구와 석구들이 많았다. 나무나 흙에 비해 영구적이며, 재료를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곳에서는 곡식을 도정했던 연자마를 비롯하여 돌방에, 맷돌, 정주석 그 밖에 동자석, 망주석, 비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화산섬을 일구어낸 제주도의 옛선인들은 돌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다. 돌은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감이 있고 나무와는 달리 마모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강인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형태의 특색있는 용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곳에는 곡식을 가공했던 연자매를 중심으로 수용통, 고래, 방에, 절구가 있고, 화로, 도구리 등의 생활용구와 동자석, 석등, 망주석 같은 신앙생활 용구를 비롯한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편집: 구성=김종열 기자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중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친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 의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 '육자의귀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미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총기 45년 총지종 주요 불사

제18대 총무원장 인선정사 취임법



단향사 헌그라운드사



춘계강공회



제37회 한일불교 문화포럼대회



고덕비지지불사



국제제가불사 지도자대회



포해사 헌그라운드사





신기사 스님영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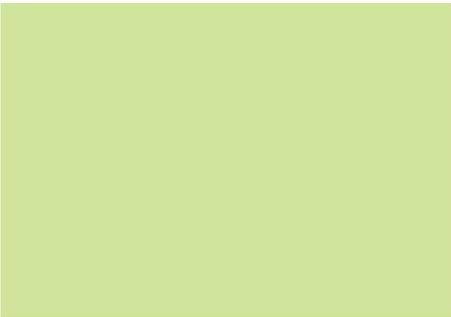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종원사 현교불사



추계강연



토사 및 좌종가 지불사



제석사 현교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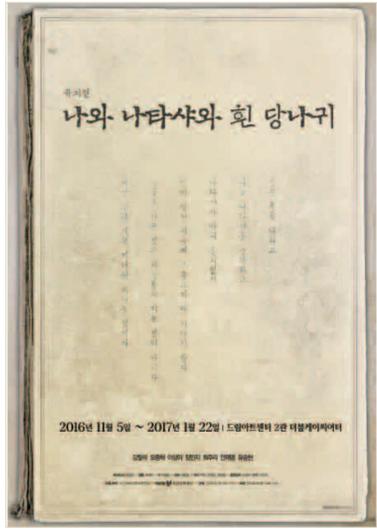
종교대학교 체원



한겨울에 대한교과대학



시인 백석과 연인 자야의 사랑 뮤지컬로



▲ 포스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풍 날리고
(중략)
눈이 폭풍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시골로 가자 출출이(밥새)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오막살이집)에 살자
(중략)
눈은 폭풍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응응을 울 것이다



▲ 백석과 자야
으로 1987년 1000억 원대 재산을 시주해 길상사를 건립하게 한 장본인.
시인 백석(1912년 7월 1일~1996년 1월)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백기행.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교를 졸업했다.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단편소설 '그 모(母)와 아들'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를 계기로 '마을의 유희(遊藝)' '담을 채인 이야기' 등 몇 편의 산문과 번역소설 및 논문을 남겼다.
하지만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는 시작 활동에 더 많은 힘을 실었다. 항토적인 서정의 세계를 사투리로 형상화한 시를 썼다. 1935년 조선일보에 '정주성'으로 등단하여 시와 수필, 야화 등을 발표했다.
1936년에 펴낸 시집 <시습>에 그의 시 대부분이 실려 있다. 1936년 1월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100부 한정본으로 인쇄한 '시습' 초판본 가격은 당시 2원(圓)이었다.
다른 시집들이 1원 정도 했던 것에 비해 고가임에

도 운동주 시인은 시집을 구하지 못해 필사본으로 간직했다고 한다. <시습>에는 '여우난', '곶', '죽' 등 새로운 인문적 시어들을 사용한, 아름다운 시들을 담고 있다.

<시습>을 통해 백석은 불교의 윤회사상과 민속신앙에 친착한 시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운명적 인연을 우선한 개인적 세계관 또한 담겨있다. 외로움과 서러움의 정조를 바탕으로 한 시 '여승'을 살펴보자. '여승'은 여승의 일생을 사실적이고 애상적으로 묘사한 시로, 일제강점기 우리 농촌의 몰락과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짚을 했다
가지취(취나물)의 내음새가 났다
슬슬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여승 중에서

4원으로 구성된 이 시는 한 여승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읊는다. 금광 찾아 나선 남편을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여인에게 남은 건 병 걸린 어린 딸마저 없고 혼자 된 슬픔뿐이다. 마음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여인이 선택한 것은 절 마당 한 귀퉁이에서 머리를 자르고 세속과의 연을 끊는 일. 그렇게 출가하게 된 여승과의 만남은 백석에게 불경처럼 서러운 일이었나 보다.

이 여승은 당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백석은 당시 문단의 경향이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방적이고 민속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시 세계를 선보였으며,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애환과 삶을 전형적으로 표현했다.

'여우 난 곶죽', '고야에서처럼 고향인 평안도의 지명이나 이웃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며 정주 사투리를 그대로 썼는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모국어를 지키려는 백석의 의지가 담긴 시어들이다. 해방 후 고향 정주에서 일제시대의 시들과 같은 경향의 시들을 다수 발표했고, 한국전쟁 후에는 북한에서 번역역과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내



▲ 자야



▲ 백석

자야 김영한 보살 사랑을 불심으로 회향, 길상사 창건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2016. 11. 05~2017. 01. 22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2관

백석은 영어교사로 당대 문학 엘리트였다. 일본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신문학을 접했던 그는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시집 <시습>에는 '여승' 외에도 '절간의 소이자기'를 통해 자연에서 수행하는 노스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시어로 담았다. <시습>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도 불교적인 소재를 담은 작품 '고사(古寺)'가 있다. 옛절의 모습을 정감어린 우리말로 표현한 시다.

이 부뚜막에 놓인 사닥다리로 자박수염난
공양주는 성궁미를 지고 오란다

한말 밤을 한다는 크나큰 술이
외면하고 가부르고 앉아서 영주도 깨일 만하다
-고사(古寺) 중에서

'자박수염난 공양주' 부처님께 올리는 쌀 '성궁미' 등의 시어는 백석이 지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백석에게 불교 인연의 정점은 연인 자야와의 만남이다. 문학과 음악에 뛰어난 조예를 보였던 기생 진향이 백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백석은 진향에게 자야라는 이름을 선물한다. 하지만 엘리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사랑은 눈총을 받았고, 백석의 가족은 이 소문을 듣고 백석을 강제로 집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한다.

백석은 자야를 설득하여 멀리 눈 덮인 만주로 도망가 살자는 절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마음이 함축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이다.

하지만 자야는 수많은 망설임 끝에 자신의 행복보다 백석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단념한다. 백석의 세 차례 권유를 모두 거절한 자야는 백석과 이별을 합니다. 1939년 이별한 후 남편이 갈리어 북에 살던 백석과 남에 살던 자야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백석을 가슴에 품은 자야는 요정 주인이 되어 많은 돈을 벌었고, 요정과 평생 번 돈을 모두 법정 스님에게 기부한다. 대한민국 3대 요정으로 손꼽히던 대원각은 법정 스님의 불사로 길상사가 되었다. 당시 자야 김영한 보살은 1천 억 원이 넘는 천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1천억이 그사람 시 한 줄만 못해."
그토록 그리던 백석을 못보고 김영한 보살은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자신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적은 종이를 함께 태워 흰 눈이 오는 날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통해 백석과 자야의 사랑이 다시 한 번 꽃핀다. 모든 시인들의 선망 대상이었던 백석 역에는 강렬석, 오종혁, 이상이 배우가 캐스팅 되었으며, 평생을 그와 헤어지던 순간을 반복하며 그리워한 자야 역에 정인지와 최주리 배우가 출연을 확정 지었다. 그리고 작품의 한 축을 이끄는 사내 역에 안재영, 유승현이 캐스팅 됐다. 실력과 배우들이 합류해 최고의 앙상블을 선사한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한 시인을 못 잊어 평생 헤어진 순간을 반복하며 그리워했던 기생 자야.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녀의 앞에 돌연 옛 사랑이 나타난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모던 보이 백석은 자야에게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는데.

이 이야기는 '나처럼 천한 여성을 한 시인이 사랑해서, 한 줄 나타샤로 만들어준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며 평생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이자, 그 여인의 기억 속에 녹아있는 시인 백석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지연 구성작가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을 후원해 주시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만다라 요양원, 바라밀 공부방, 초록 어린이집, 일원 어린이집, 포레스타 어린이집, 햇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공익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보시행의 근본으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 사회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합장

진각종 제12대 회정 총인 추대 제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

“종단과 사회,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불사 펼치겠다”



진각종 제12대 회정 총인 추대 및 제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법회가 11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됐다.

진각종 서울교구 연합합창단과 밀각심인당 신교도 조재운 학생 및 청년 국악인들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개식사 △정공 △등단정좌 △삼귀경 △강도발원 △개회예찬(오대서원, 유가삼밀) △봉행사 △제12대 회정 총인추대 의례(총인 수행이력 소개, 청법가, 예경 합장례, 법어) △제30대 회성 통리원장 취임 의례(통리원장 약력 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화환 증정 △축연 △내빈소개 △폐회예찬 △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회정 총인은 법어를 통해 “굽은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실천이다. 의뢰하는 마음이 병이 되니 육행으로 자주정신을 함양하는데 바른 실천이 이뤄진다”

를 서원한다”고 했다.

교육원장 덕정 정사(봉행위원)는 강도발원문에서 “우리 진언행자 모두는 진각 70주년의 의미를 받들어 진각의 새로운 세대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회당 종조의 가르침을 자주적으로 수용해서 종단과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을 서원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춘광(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진각종단과 한국불교계가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성취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원용기 중무실장 대독)은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총인회정 정사님과 통리원장 회성 정사님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도 “앞으로 두 분께서 법체 강건하시고 교화를 널리 퍼시어 진각종과 종도들의 큰 발전을 축원하며, 지금 국내외의 어지러운 시기에 국민안도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해일, 도훈, 혜정, 수성, 해명 정사 등 진각종 원로스승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정심정 진각종 총금강회장, 기동민 성북구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동덕여자대학교 김낙훈 총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 창립 47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 스님), 신도회 창립 47주년 기념법회를 2016

년 11월 1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조계종 정무원장 혜종 스님, 총지종 주양종의회의장 수현 정사,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현 부산시의회의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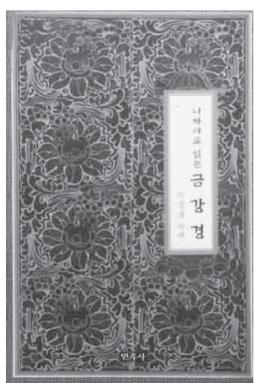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에서 “반백년 향한 거룩한 불심 불보살님 가피하여 주시니 성불향한 큰 원력을 힘차게 나아가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축사에서 춘광 스님은 “47주년의 의미 가슴에 새기고 무궁한 세월을 두고 중생계의 복전 되도록 대발심과 원력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지역 최대의 힐링 사찰로 전 신도들이 중생구제 위해 정진하자”며 삼광사가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중표교수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출간

“금강경 바르게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열어줄 것”



‘아함경’과 ‘니까야’를 통해 본격적인 근본불교 연구를 하고 니까야를 정선하여 번역 출간해 온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민족사)을 펴냈다.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은 2016년 1월 이중표 교수가 서울, 광주, 구례에서 강의한 강의를 보충하여 정리한 책으로 출간 전부터 문외야가 쏠려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책은 근본불교와 아울러 대승불교를 천착해 온 이중표 교수가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이 근본불교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에 근거함을 밝히고, 한 구절씩 니까야의 내용을 밝히면서 금강경을 명쾌하게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무엇보다 근본불교에 입각하여 평소 어렵게 읽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이중표 교수의 명쾌한 해설이 돋보인다. 아울러 잡아함경과 화엄경, 육도집

경, 혜능의 육조단경, 용수의 종론, 승찬 선사의 신심명, 박노해 시인의 시, 윌러, 하이젠베르크 등 동서양의 안목이 열린 이들의 말을 이용하여 중흥무진한 해설로 금강경의 세계로 이끌어 주고 있다.

이중표 교수는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은 왜 지금 불교를 배우고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로 금강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된 것도 특징 중 하나”라며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면 모든 논쟁들이 종식되고 사회적 갈등과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 책에 녹여냈다”고 덧붙였다.

사찰불화 명작강의 우리가 꼭 한 번 봐야 할 국보급 베스트 10



강교수는 11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에게 우주관·가치관·사후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불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옥과 극락, 정토세계와 사바세계, 법계와 속계, 연화장세계 등.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화가 전달하려는 뜻은 ‘삶의 바른 이치’이다.”며 “불교의 모든 조형미술은 공덕장엄의 표현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찰불화는 이 같은 공덕장엄의 진리가 여실하게 담긴 최고 최상의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사찰불화 명작강의〉는 학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기행문 형식을 가미하여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선사한다.

우리나라 사찰 곳곳에 숨겨진 명작 불화를 찾아 떠나는 저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마치 현장에 동행해 눈앞에서 해설을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불화에 대해 배우고 감상하게 된다. 작품과 사찰에 얽힌 오랜 역사와 흥미로운 일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독자들을 불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 불화의 기본적인 구도나 묘사법 같은 작품의 기술적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각 작품들에 담긴 핵심 내용(불교적 가르침)과 작품이 제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두루 짚어준다.

이 책에 소개된 10점의 불화는 한국 불화만의 멋과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국보급 명작들이다.

한다. 25년 차 베테랑 미술학자인 저자의 식견과 다채로운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불화를 접하게 되고, 이로써 책에 소개된 작품들뿐 아니라 한국불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불화의 현란한 장식 표현과 매끈한 곡선에서 전해지는 멋스러운 이면에 감춰진 층층의 이야기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강소연씨는 원로미술사학자 강우방(전 국립경주박물관장) 선생의 딸로, 청소년기를 미국 보스턴에서 보냈고 게이브리얼CRLS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으로 귀국했다.

문화재를 공부하기 위해 고려대·영국 런던대·서울대·일본 교토대·대만 국립중앙연구원 등을 거쳤고, 이들 전 과정을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원·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디지털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였고, 홍익대학교 겸임교수로 10년간 교편을 잡았다.

수상 경력으로는 일본의 명예학술상 ‘국화상’ 장려상, 한국의 ‘불교사학자 우수논문상’ 등이 있다. 현재는 중앙승가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광출판사 정가 20,000원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초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

화령 번역

✓ 쉬운 번역!
✓ 간결한 표현!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인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유물로 보는 밀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5호
명 칭 : 남해 화방사 청동반자
南海 花芳寺 靑銅飯子
시 대 : 조선시대



▲ 남해 화방사 청동반자

원형의 청동반자는 金口 혹은 金鼓로 불리는데 대중을 불러 모은다든지 급한 일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불구의 일종이다. 화방사 반자는 뒷면이 비어 있는 일반

적인 형식을 따랐다. 撞木으로 치는 부위는 마모되었는데 내부의 보수흔적으로 보아 2회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자의 특징을 보면, 앞면은 2조의 용기 돌대가 중심원을 그려 內區와 外區로 구분하였다. 내구는 문양이 없고, 외구만 직경 7.8cm 크기의 梵字원권문이 4군데로 나누어 시문되었는데 전체적인 특징이 남해 용문사 반자와 닮았다.

다만 용문사 반자는 당당함이나 세련됨이 결여되어 화방사 반자보다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자 측면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4조의 용기돌대가 돌아가는데, 전면 3개의 돌대는 서로의 간격을 좁게, 마지막 돌대는 넓게 돌렸으며, 넓은 면에는 거(處)에 걸기 위한 3개의 고리를 따로 주조해 붙였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혼자 걷는 겨울 산길. 참 오젓하다.

어이구~ 추워! 하지만 땀에 달는 바람은 정말 시원해서 좋구나.

카~시원하다. 땀에 달는 바람이 정말 좋구나.

두꺼운 옷 입고오길 잘했네.

앗! 이런, 옷이 흘러내리다니.

두꺼운 운동복 입고 달렸더니 슬슬 더워지네.

오호! 이런, 옷이 때맞춰 흘러내리다니.

아유~! 부끄러워. 누가 보진 않았겠지?

쫄쫄, 쫄쫄하긴.

호젓한 산길에 누가 있다고 부끄러워하나?

에이, 아무도 안 보는데 잠시 속옷만 입고 뛰자.

헐, 못된 중생 같으니. 새가 보고 쥐가 보고 나도 보았다.

산신령도 나를 보셨고 참새들도 나를 보았소. 게다가 저기~!

헐~내가 산신령?

새가 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쥐가 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근데 영감님은 누구세요?

나? 산신령. 자격증 보여줘?

두 개나 있다고!

모름지기 부처님의 제자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아이구, 숨차.

불제자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저기.

우왓!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471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1. 보인수(寶印手) 진언

옴 바아라네 담아에 사바하
만약 말을 잘 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트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바다의 볼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트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명 이상은 무료배송 합니다.





초의선사의 다양을 느끼다 예술의 전당 서예관 초의선서 특별전

예술의 전당 서예관이 초의선사의 회귀 유물 대거 공개한다. 차의 성인으로 추앙되는 초의 선서는 다산 정약용과의 우정으로도 유명하다.

초의 선사의 일생과 그의 유묵, 유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산경첩>(보물1683-1호 개인소장), <청량산방시축>(개인소장), <관세음보살여의주수>(개인소장)[사진1], <문수보살도>(범어서성보박물관 소장), <선문사변만어>(개인소장), <죽로지실(竹爐之室)>(호암미술관 소장)[사진2], <단연죽로시축(端硯竹爐詩軸)>(영남대박물관 소장)[사진3], <초의행(草衣行)>(개인소장) <여백과서(如白坡書)>(합평군립미술관) 등과 초의선사 유품으로 <흑유(黑軸) 차 주전자>[그림4]와 인장(印章), 소장서적 등 초의관련 걸작 및 회귀유물 70여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유물은 호암미술관, 범어사성보박물관, 동국대도서관, 남농미술관, 합평군립미술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등 국립립박물관, 사찰 개인 30여 곳에서 모은 것이다.

<주요작품>

1. 다산선생님과 산천유람 백운등에서 다산까지
다산과 초의는 24살 차이가 나는 사제 관계다. 1801년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 온 다산은 1809년부터 초의에게 시(詩)와 유학(儒學)을 가르쳐주었다. 차(茶)도 마찬가지로 알려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반대다.

2. 우리 처를 노래하다
해거도인에게 올리는 <동다송>
중국에 옥우의 <다경(茶經)>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초의의 <동다송>이 있다. <동다송>은 1837년 정조대왕의 부마 홍희주의 명을 받아 지은 68구 434자의 장시다.

3. 선문(禪門)논쟁의 불을 당기다
백파 <선문수경>:
초의 <선문사변만어>
선(禪)수행의 요체는 한마디로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선열(禪悅)이고 해탈(解脫)이고 바라밀(波羅蜜)이다. 백파는 선(禪)수행을 '이 뭐고?'와 같은 화두일념(話頭一念)으로 해결된다고 보았다. 반면 초의는 여기에 교학(敎學)을 겸해야만 된다는 입장이다.

4.如意 뜻대로 - 선묵(禪墨)과 불화(佛畵)
초의의 불화(佛畵)와 선묵(禪墨)은 선장에 못지 않는 격(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의의 화업(畵業) 서업(書業)과 같은 선묵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괄로 알려진 초의의

서화(書畵)는 <관세음보살여의주수> <백묘문수보살도> <심일면관음보살도> <천불전신중탱> <백운동도 다산도> <추수청공첩> 등이 있다. 여기서 보듯 초의의 서화는 채색(彩色)과 백묘(白描)로 그려진 불화에서부터 실경산수(實景山水)와 심지어 탱화불사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5. 유불(儒佛)을 넘나드는 도반(道伴) 추사
추사에게 있어 초의는 어떤 존재일까. 한마디로 통유(通儒)로서 추사의 학예는 초의선사라는 도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동갑네기 스님 초의와 유학자 추사는 30세에 만나 71세 추사 작고까지 42여 년 간 서로에게 전방위로 영향을 끼쳤다.

6. 교유(交遊) 장서
지금까지 본대로 초의는 다(茶)성(聖)이자 선장(禪 匠)이다. 이번 전시는 선다 일여(禪茶一如, 선묵일여(禪墨一如)의 장본인으로서 초의를 다양한 교유관계인물 속에서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초의의 유가(儒家)스승인 다산(茶山)과 유불선(儒佛仙)을 넘나드는 통유(通儒)이자 도반(道伴)인 추사(秋史) 그리고 19세기 여러 지성(知性)들을 초의와의 다연(茶緣)으로 살펴보았다.

[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입장비] 무료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11/21)

국립극장 마당놀이 신작 '놀보가 온다' 12월 8일부터 해오름극장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은 오는 12월 8일(목)부터 2017년 1월 29일(일)까지 국립극장 마당놀이 신작 '놀보가 온다'를 해오름극장에 올린다.

2014년 '심청이 온다'로 마당놀이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2015년 '춘향이 온다'로 이어지며 총 8만 6천여 관객의 선택을 받은 연말연시 최고의 공연이다.

신작 '놀보가 온다'는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에 이은 세 번째 '온다' 시리즈로 '홍보전'을 바탕으로 한다. 욕심이 가득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놀보 부부와 한순간에 부자가 된 홍보 부부 이야기로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놀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이며, 원작에 없는 새로운 배역인 마당쇠가 놀보를 향해 걸쭉한 돌직구 대사를 펼치는 등 관객들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저출산, 월세 폭탄 등 동시대의 주요 사회 이슈들을 날카롭고 유쾌하게 담아내는 마당놀이 특유의 풍자와 더불어, 무대를 가득 채우는 70명의 배우와 무용수, 연주자들은 화려한 춤사위와 구수한 소리, 신명나는 음악으로 관객의 눈과 귀가 호강하는 잔치판을 완성한다. 이번에는 남사당패의 진기한 줄타기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에는 국립극장단의 희극연기 대표주자들이 총출동한다. 놀보 역은 국립극장 마당놀이 터줏대감이자 독보적인 코믹 연기로 매 작품마다 관객을 들뜨게 하는 김학용이 맡아 심술 가득하지만 귀여운 매력의 놀보를 연기한다.

'심청이 온다'의 심봉사, '춘향이 온다'의 변학도를 맡았던 그가 이번에는 주인공 공 놀보를 맡아 한층 더 깊어진 해학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홍보 역은 국립극장단의 막내 단원이자 최근 창극 '오르페오전' '트로이의 여인들'을 통해 뛰어난 소리 실력과 타고난 끼를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신예 유태평이 맡는다.

비극을 통해 진지한 연기를 선보여온 그가 마당놀이에 처음 도전함으로써 연기 변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놀보가 온다'의 새로운 주인공 마당쇠 역에는 이몽룡부터 방자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이광복이 낙점됐다.

창극 '적벽가'에서 살기 어린 조조를, '오르페오전'에서 램을 선보였던 이광복은 놀보에게 천덕꾸러기 돌직구를 날리며 극을 이끌 예정이다.

김학용과 함께 국립극장 마당놀이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출연하는 작품마다 넘치는 끼와 몸매 벤 재기발랄함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는 서정금은 홍보처를 연기한다. 이에 질세라 디테일한 코믹 연기와 구성된 소리실력을 지닌 국립극장단의 또 다른 재담꾼, 신인단원 조유이는 놀보 역을 꿰찼다. 이들 주역은 모두 원캐스트로 총 46회 공연을 이끌며 찰떡 호흡을 선보일 예정. 국립극장단 신구 배우들의 신선한 조화를 기대할 만하다.

마당놀이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무대와 객석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통에 있다. 국립극장은 이러한 마당놀이의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시니엄 형태의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가설 객석을 설치, 삼면에서 연회를 감상할 수 있는 마당놀이 무대를 구현했다. 또한 마당놀이의 트레이드마크인 길놀이와 고사, 옛사 먹기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다.

막이 내릴 즈음에는 흥에 겨워 무대로 나온 관객들과 전체 출연진이 어우러져 신나는 뒤풀이 현상이 연출되는 것도 마당놀이의 묘미다. 극장에 들어서서 나갈 때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국립극장 마당놀이로 풍요로운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매문의 국립극장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2280-4114.

조계종 교육원,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번역 연구성과 연찬회 개최

12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12월 13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융합학과와 불교한문번역 연구성과 연찬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국불교

융합학과(학과장 김종욱)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조계종 스님들의 초역 및 영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신경스님은 '淨影寺 慧遠의 大乘義章 八識義 연구와 역주', 대진스님은 '淨影寺 慧遠의 大乘起信論義疏 연구와 역주-大乘義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 지현스님은 '遼代 鮮演的 華嚴經 談玄決擇 연구와 역주', 선암스님은 '조선 후기 <華嚴玄談 私記의 往復序 연구와 역주', 현서스님은 '조선후기 默庵 最訥의 默庵集 연구와 영역 역주'를 발표한다.

입재식에서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치사,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충지정보 인터넷 뉴스(www.chongjinews.com)

서원성취를 위하여 진언염송과 함께 진언사경을 실천해보십시오

원하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역음: 법경 중사 (밀교연구소장) / 편찬: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불교총지중 / 인쇄: 동림기획
면수: 250쪽 / 법보시 가격: 1권당 3,000원
구입문의: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02)552-1080~3

16종의 진언사경집으로 일체재난을 소멸하고 일체서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사항>

- 1. 배우자 및 좋은 사람 만남 발원
- 2. 사업 원만 발원
- 3. 취업 원만 발원
- 4. 건강 원만 발원
- 5. 선망 부모 및 조상 영식 천도 발원
- 6. 학업 및 승수 시험 원만 발원
- 7. 업장 소멸 발원
- 8. 경제난 해탈 및 생활 향상 발원
- 9. 아기 잉태 원만 발원
- 10. 참회 발원
- 11. 가옥 등 재산 매매 발원
- 12. 관재 구설 소멸 및 승소 발원
- 13. 일체 서원 성취 발원
- 14. 지혜 총명 발원
- 15. 부부 및 가족, 동료 화합 발원
- 16. 병고소멸 및 수술원만 발원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